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 ‘젠걸음’ 곳곳서 낙하산·깜깜이 논란 확산

20명 가까이 접수한 공영흡소평 새 대표에 이모씨 유력설 거론 이씨, 19대 국회의원 지낸 인물

신임 창진원장, 비전문가 지적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창업지원 노력’ 신보회장 인사 입단속 정황 빈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휴업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취임했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낙하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기부 출신으로 이동이 당연시됐던 기관장 취임을 놓고는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공영흡소평은 지난 14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 서류를 받은 결과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공영흡소평이 지난해 9월 이후 비어있던 대표 자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60년생이면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 인구에 회자됐다. 급부상한 이모씨는 서류 접수를 마감한 현재도 신임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씨는 19대 총선에선 경기 성남분당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원내에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2년 당시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고용과 복지분야를 담당했고, 20대 대선때는 KDI에서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유승민 예비후보자를 도와 캠프에서 정책1본부장을 이끌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소기업부 전경.

공영흡소평은 현재 서류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다.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관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TV흡소평인 공영흡소평은 올해 7월 개국 10주년을 맞는다.

‘스타트업’으로도 불리는 창업기업 등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에는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인 유종필 원장이 지난달 말 새로 취임했다.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넘나들었던 유종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유 원장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식에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창업을 대변하는 창업진흥원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관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

의 관계자는 “기관의 내부 임직원들은 ‘낙하산’이라도 힘이 썩 인물이 오길 바라는게 인지상정이다. 단 전문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내려와 임기내내 자기 정치만 하다 가는 것은 안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원영준 회장이 지난 19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들어갔다. 원 회장의 이동은 이미 점쳐졌었다.

그런데 취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말 것을 신보중앙회측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일부 기관장에 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식구 관련 인사를 놓고도 입단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중기부 담당과에 ‘이런 시국에 인사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문의를 해왔다. 이에 중기부 실무자가 ‘신보 측에서 잘 판단하시라’라고 전했는데 이 말을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임 기관장 모집 접수가 끝난 한국벤처투자(KVIC) 사장에는 중기부에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이대희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에서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변태섭 전 실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2월 말 산하기관 인사 진행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 질문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곽재선 회장, 혁신 DNA ‘진화 중’ 글로벌·내수 공략 성과 ‘뚜렷’

쌍용차 인수 후 실적 반등 지속
토레스 EVX 인기, 수출 물량 증가
영 판매 18% ↑... 10년내 최대 실적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KG모빌리티(KGM)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 확대와 판매 상승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청산 위기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2022년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뒤 2년 연속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영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6년 티볼리 흥행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지만 곽재선 회장이 이끄는 KG그룹 가족사로 편입한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GM의 경영정상화는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통의 주력 사업군인 내수와 더불어 곽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하면서다.

최근 KGM이 발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10만9424대 ▲매출 3조7825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당기순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안정적 성장은 액티언 등 신모델 출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토레스 EVX 판매에 따른 CO₂ 페널티 환입과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내수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점’을 개소한 데 이어 강남 팝업 시승센터를 운영하며 고객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객 니즈를 반



곽재선 회장이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한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2025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칸, 렉스턴 등은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트림을 내놓았다.

해외는 유럽에서 중남미까지 글로벌 신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곽 회장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현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직접 참여하고 대리점 판매 직원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나라별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유럽 위주로 구성된 수출 부문을 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신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유럽 및 중남미에서 대리점 강화와 협업 확대를 강조한 그의 노력은 2014년 이후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2만6890대를 판매하며 2023년 대비 18% 성장을 기록했다. KGM은 수출 비중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68%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中 전기차, 韓 시장 ‘프리미엄 전쟁’ 예고

지리자동차, ‘지커’ 7X로 본격 진출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가성비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프리미엄으로 확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지난달 28일 ‘지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코리아 주식회사’(지커코리아)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앞서 BYD가 선발대로 아톰3를 출시하며 발을 내딛은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커코리아는 법인 설립 목적을 ‘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입 사업’, ‘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유통·판매·서비스 사업’,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제조·가공·판매·임대·서비스업’ 등으로 밝혔다.

지커코리아대표이사는 차오위 지커

동아시아 총괄이며, 사내이사로는 김남호 전 폴스타코리아 프리세일즈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지커는 한국법인 설립 등록을 마치고 시장 분석, 딜러사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BYD가 3000만원 초반대 저가 전기차 ‘아토3’로 국내 시장 전체를 공략하고 있다면, 지커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히 지커는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리자동차는 지난 17일 지커 로고에 대한 국내 상표 등록도 마쳤다. 지커의 ‘7X’ 상표 출원을 했다는 점에서 초기 출시 모델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X는 최고 출력 639마력의 주행 성능으로 1회 충전 시 543km(WLTP 기준)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3.8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일렉트릭, 과전압 방지 배전변압기 첫 공개

미국 ‘디스트리뷰테크 2025’ 참가
친환경·고효율 배전기기 전면 배치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 배전기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시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디스트리뷰테크 2025’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4회째인 ‘디스트리뷰테크’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ABB, 지멘스, GE 등 700여개의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업이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송배전 및 에너지 분야 전시회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 가운데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HD현대일렉트릭이 처음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전변압기, 친환경 배전반, 중저압



HD현대일렉트릭 ‘디스트리뷰테크 2025’ 부스 조감도.

/HD현대일렉트릭

차단기 등 배전기기가 포함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과전압방지기능이 적용된 배전변압기 실물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설비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인 환경에 최적화됐으며, 독자적인 보호 기술 설계를 통해 과도한 전압 상승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배전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청주 배전 신공장에서 생산될 최신 제품들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배전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